

IMF 위기 아래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김동춘

(편집위원장)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이승만 정권 말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던 시점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외치면서 정권의 부패와 권력자에게 묵종하고 시세의 추이에 맹종하는 백성들의 무기력을 질타한 적이 있다.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민족적·국가적 대난리를 겪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 “못 견디겠다”는 신음소리, 그리고 이 난리를 빨리 극복하자는 말들은 무성하나, 오랜 ‘생각’의 결과로서 나온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함 선생이 외친 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되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에는 ‘고행을 각오하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광야에서 소리를 지른 선지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편승하는 데서 오는 이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세의 압박과 위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시세의 아픔을 단지 시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역사에 견주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참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시세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사꾼과 정치꾼, 그리고 관변의 ‘생각’단체에서 생각이 안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이요, 시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사람들에게서만 희망을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의 언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상인들의 생각의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일 테지만, 자신과 무관할 경우에는 침묵하다가 막상 자기에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나 죽겠다”고 소리지르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세상을 바로 보자고 떠들썩하게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결국 혼자만 ‘좋은 자리’에 간 것을 본 우리들은, 마치 ‘오랜 생각’의 결과로 제시한 듯한 주장들이 기실은 자신의 변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임을 발견하고 씁쓰레한 기분을 가진 적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었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위기를 언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점보다는 과연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그러한 힘이 형성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집단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만약 우리사회 어느 구석에라도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 아니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하는 집단이 되려 하며, 또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려 한다.

이번 호는 지난 호에 이어 IMF 관련 논문들을 묶어서 특집으로 <세계 자본주의, IMF와 오늘의 한국사회>를 구성하였다. 김재훈은 국제투기자본의 대두를 단순한 하나의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변화,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와 결부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주희는 자본의 세계화가 국민국가에 대해 갖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세계화 현상을 과거의 종속이론과 견주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공제욱은 IMF 위기를 한국의 재벌체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IMF하에서 한국의 재벌체제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강내희는 오늘의 경제위

기를 단순한 경제위기로서가 아니라 문화정치, 문화경제의 위기로 파악하면서 IMF하에서의 문화정치경제의 현실을 밝히고 있다. 김진균은 실업문제를 포함하여 IMF하의 한국사회 상황을 개관하면서 실업자가 '주체'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변혁의 길을 탐색한다.

집중기획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신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로 비판하고 있다. 장상환은 신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조순경은 신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여성의 권리와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가부장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쟁점란에서는 김수현의 「홈리스 문제의 구조와 대책」을 실었다. 사실 한국에서는 홈리스(homeless)보다는 노숙자라는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는 지적도 많지만, IMF하에서 과거에는 생겨나지 않았던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이 바로 홈리스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따라서 《경제와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호의 연구논문으로는 조효래, 조형제, 정이환의 노동 관련 글이 실렸다. 우연하게도 이들 논문은 변화된 경제질서와 기업환경, 특히 유연화된 생산방식이 작업조직이나 노동조합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효래의 논문은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였고, 조형제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정이환은 미국에서의 논쟁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경제와사회》 역시 예정보다 발간이 늦어졌다. 이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 출판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고 학술서적의 간행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 《경제와사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독자들의 많은 격려와 질정이 있기를 기대한다.